

광주시·지역대학, AI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힘 모은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융합대학 지원사업 워크숍 기업 수요 기반 AI 인재양성...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를 책임질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3일 오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IT스퀘어에서 'AI융합대학 지원사업 Kick-of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등 AI 융합대학을 비롯한 AI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2년 인공지능(AI) 융합대학 지원사업 소개, 사업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이 이어 대학별 AI융합대학 사업계획 발표·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AI융합대학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AI융합대학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특화 산업인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3개 분야와 인공지능 원천기술 1개 분야의 기업 수요를 예측해 대학 내 해당 분야와 인공지능 융합 전공과정 등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AI 융합 실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의 AI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해부터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로 전남대(에너지), 조선대(헬스케어), 호남대(자동차), 지스트(원천기술) 등 4개 대학을 AI융합대학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남대 'Energy+AI 트랙', 조선대 'AI헬스케어 융합전공', 호남대 'AI자동차융합전공', 지스트 'AI 융합교육과정' 등 각 대학별로 분야별 인공지능 융합과목과 산·학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실습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교과 과정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또 이들 대학에 AI산업체 수요기반 산학협동 프로젝트와 글로벌 AI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 프로젝트,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활용·연계한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물로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에 25개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학생 1025명이 참여해 평균 만족도 90.6점(목표 대비 111%)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대학별 의견수렴 및 현안 협의 기구로 AI융합대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모



23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IT스퀘어에서 열린 'AI융합대학 지원사업 Kick-off 워크숍'에 참여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AI 융합대학, AI 기업 관계자들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니터링을 실시해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확산 및 공동사업 등도 기획·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올해는 지

난해 AI 융합대학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융합교육체계 구체화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과 글로벌 프로그램 다양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AI융합대학 지원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최적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5 세계선수권 전초전 양궁 월드컵 성공 마무리

'양궁 도시' 광주 위상 확인 방역·대회 운영 등 '합격점'

광주시가 2025년 세계선수권대회 실전 리허설로 치러진 양궁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 양궁 월드컵은 지난 17~22일 광주 국제양궁장,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38개국 391명(임원 127명 포함)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선보였다.

각국 선수단은 도착 직후 광주시청 야외 선별 검

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대회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자가 검진을 위한 키트와 마스크를 지급하고 대회 종료 후 귀국에 필요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도 지원했다.

대회 개최가 결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160여 일의 짧은 준비에도 세계양궁연맹 관계자들과 참가 선수들은 시설과 대회 운영에 만족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탐 킬런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은 "예산부터 결승까지 단 1%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대회였다"고 극찬했다.

지역 학교와 실업팀 양궁 선수 부모 70여명이 참여한 '양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간식 제공, 체코·비진아일랜드·모로코·슬로바키아·트리니다도토바고 등 1인 참가국 선수와 우정 오찬, 광주

관광지 답사 등 세심한 운영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총 10개 종목에서 금 6, 은 2, 동 1 등 9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계선수권대회 전초전 격인 이번 대회 개최에 힘을 모아준 관계자들과 시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정부, 세계양궁연맹,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세계선수권을 자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중 8일간 열린다. 90여개국 1100여명 선수단이 참가하고 방문객은 1만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독병원에 365일 도서대출·반납 스마트도서관 개관

광주시립도서관, 업무 협약

광주시립도서관은 "24일 생활밀착형 비대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기독병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병원 1층 로비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비대면 도서관이다.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책이름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에는 아동·일반 신간도서, 기독교원 희망도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베스트셀러 등

240여 권의 도서가 탑재돼 있으며, 1인당 2권까지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분기별 도서를 교체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신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부스 내 책 소독기를 비치하고 방역도 강화한다.

백승희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본격화

사업 완성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컨설팅 병행 추진

주민 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전남도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특색을 찾아 변화를 이끌도록 전남도가 자체 기획한 사업이다. 계획부터 추진,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해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여수 장척마을은 노후 해안도로 방호책을 무지개색으로 도색해 마을경관을 개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시는 시민정원추진단을 구성해 마을 주민과 함께 한평생원 조성해 힘쓰고 있다. 특히 순천남제동 11동은 자투리땅에 마을 이야기를 담은 공유정원을 조성해 주민심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 몽송마을은 동강 느리지 전망대 주변에 꽃밭과 포토존을 조성,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나주 이화마을은 마을 시를 담은 벽화를 꾸며 마을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

전남도는 올해 평가위원들과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발전방향 제시, 주민의견 수렴 등 컨설팅을 함께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으뜸마을에는 마을활동가를 투입,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현장 컨설팅을 한다.

으뜸마을 컨설팅은 마을 특색에 맞는 현장 컨설팅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활동과 방법을 주민이 이해하도록 돕고, 마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규용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시군과 마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우수 으뜸마을이 생겨나 있다"며 "더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남 마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3000개 마을을 선정해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00개 마을에 올해 1000개 마을을 추가, 현재 모두 2000개 으뜸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